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8. Vol. 19. No. 2. pp. 37~62.

집단따돌림 피해의 유발 및 지속요인*

서미정** · 김경연***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따돌림 피해의 유발 및 지속요인을 밝힘으로써 피해의 예방 및 피해아의 중재시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에 비해 집단따돌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등학교 4학년을 5학년까지 피해지속여부에 따라 피해 탈피, 피해 시작, 피해 지속으로 구분하여 일반집단과 피해집단 및 피해 탈피집단과 피해 지속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 4패널 1,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남아와 여아 모두 피해 탈피, 피해 시작, 피해 지속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남아에 비해 여아의 피해 개입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우울·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경우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아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거나 부모 감독 수준이 낮을 경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집단따돌림 피해, 피해지속유형, 유발요인, 지속요인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 외부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미네소타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박사후연구원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겸임연구원

Ⅰ. 서 론

또래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한 유형인 집단따돌림은 10세부터 14세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Hoover et al., 1992) 피해비율[1]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점 낮아진다고 보고되었다(조아미 · 조승희, 2006).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비율이 2002년 13.7%에서 2006년에는 17.8%까지 증가하였다(파이낸셜 뉴스, 2007.10.12). 즉 초등학생들의 피해빈도는 중 ·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학교가기를 꺼려하거나(Boulton & Underwood, 1992),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이춘재 · 곽금주, 2000; 최미경, 2000), 우울, 불안 및 외로움(임지영, 1998; Perry et al., 1990) 등의 적응 문제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경험한 집단따돌림 피해는 성인기에까지 고독,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으로 연결되곤 한다(Kupersmidt et al., 1990; Olweus, 1993).

집단따돌림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아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격행동에 비해 심각하다(권준모, 1999; 이해경·김혜원, 2001; 황성숙, 1999; Olweus, 1978; Perry et al., 1988). 실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피해경험이 장 · 단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최미경, 2000; Coie & Dodge, 1983; Egan & Perry, 1998; Hodges et al., 1999; Smith & Shu, 2000), 피해행동은 가해행동에 비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03).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 · 단기적인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집단따돌림 피해의 감소를 위해서는 피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밝히되, 유발요인과 지속요인을 각각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해의 유발요인을 밝힘으로써 집단따돌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피해의 지속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피해를 경험했다해도 이후 피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집단따돌림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 가족, 또래

1) 피해비율 : 초 4-4.7%, 초 5-3.1%, 중 2-2.6%, 중 3-1.4%, 고 1-0.7%(조아미 · 조승희, 2006)

및 학교 환경요인들이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왔다(김선아, 2005; 김은정 외, 2001; 배아영 · 이숙, 2006; Egan & Perry, 1998; Karatzias et al., 2002; Stevens et al., 2002). 즉 집단따돌림 피해는 아동의 취약한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 또래, 학교환경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집단따돌림 피해의 원인을 밝힌 연구들은 몇몇 종단연구들(김은정 외, 2001; 심희옥, 2002; Egan & Perry, 199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떤 특정한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횡단연구로서 피해의 원인 요인이 피해보다 시간적 우선성이 명확히 확보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단따돌림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지속요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최근까지 주로 횡단연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되거나 피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종단자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 유발원인을 밝히고, 또 피해 지속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피해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 예방 및 피해아의 중재시 보다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을 5학년까지 추적하여 조사한 피해지속여부에 따라 피해 탈피, 피해 시작, 피해 지속으로 구분하여 피해 무경험집단과 피해 경험집단을 구분하는 요인 및 피해 탈피집단과 피해 지속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집단따돌림 피해를 지속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집단따돌림의 개념 및 지속성

올웨우스(Olweus, D., 1978)는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집단따돌림을 설명하였는데, '한 학생이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 학생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부정적 행동이란 어떤 사람이 남에게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거나 주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집단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의 bullying에 해당하는 용어로 집단괴롭힘, 또래괴롭힘, 집단따돌림, 왕따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이지메란 용어가 소개되면서 부터인데, 이지메를 우리말로 옮긴 말이 집단괴롭힘이다. 황성숙(1999)은 집단을 가해아의 수로 규정하기보다 학교라는 맥락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집단괴롭힘을 '동일집단 내에서 다수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보았다. 서미정(2006)은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집단 맥락인 학급 내 또래들간에 발생하는 괴롭힘에 초점을 두어 또래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는 고립과 따돌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생겨난 용어가 집단따돌림(이춘재 · 곽금주, 2000; 조아미 · 조승희, 2006)과 은어로써 왕따(권준모, 1999; 이규미 외, 1998)가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따돌림은 연구자마다 두 세개의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올웨우스(1978)는 가해아의 의도 및 행동의 결과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가해아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주도록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가해아의 행위에 의해 피해아는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집단따돌림이 가해지는 방법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Björkqvist et al., 1982).

집단따돌림의 특성 중 하나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권준모, 1999; 이해경·김혜원, 2001; Olweus, 1978; Perry et al., 1988). 즉 피해경험은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최미경, 2000; Egan & Perry, 1998; Hodges et al., 1999), 피해아의 약 30%～50%는 5년 이상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oie & Dodge, 1983). 이은주(2003)의 연구에서는 피해행동이 가해행동에 비해 더욱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스와 슈(Smith, P. K., & Shu, S., 2000)의 연구에 의하면, 피해아의 약 65%는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에만 따돌림을 당하였으나, 13%의 피해아들은 한 학기동안, 9%의 피해아들은 일년동안 피해가 지속되었고, 수년간 따돌림이 지속된 피해아들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bullying이 집단따돌림 경험여부에 의해 측정된 것이므로 집단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부정적인 명칭을 공개적으로 부과하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소속집단에서 제외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며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이 수반되는 행위들'로 정의내리고자 한다(권준모, 1999).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따돌림 피해행동을 유형별로 측정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2.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영향요인

1)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최미경(2000)은 5개월간의 단기종단연구를 통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이후 중학교 2학년 남,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졌음을 밝혔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및 가치감을 의미하며(Rosenberg, 1965), 자신을 평가하는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학령기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또래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받는 경험이 된다. 즉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평가하지 못하고 쓸모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반해 낮은 자아존중감이 피해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김은정 외, 2001). 심희옥(200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아동이 2년 후 집단따돌림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간과 페리(Egan, S. K., & Perry, D. G., 1998)는 3학년에서 7학년 사이의 남녀학생들을 6개월 간격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낮은 자긍심이었지만 피해경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은 자긍심을 초래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보듯이 지속적인 피해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따돌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 피해아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악순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나게 하여 집단따돌림의 표적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2) 우울 · 불안

집단따돌림과 우울 · 불안간의 관련성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피해아들은 잘 울고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Asher, 1990; Olweus, 1994) 가해아 및 일반집단에 비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아미 · 조승희, 2006; 한종철 · 김인경, 2000). 임지영(1998)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언어적인 형태의 직접적인 따돌림에 비해 피해아를 고립시키거나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등 관계적 따돌림이 아동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정 외(2001)는 4개월간의 단기종단연구에 의해 우울 · 불안이 아동의 피해성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 즉 아동의 우울 · 불안은 공격에 대한 보복 또는 공격제지에 대한 주장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임으로써 피해를 유발하게 되고, 피해아의 따돌림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신체 · 외모 및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집단따돌림 피해아의 개인적 속성 중 하나는 신체적 외모의 부정적 특징을 들 수 있다(Asher, 1990). 즉 피해아의 신체 · 외모의 취약성은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해아들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취약한 아동을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피해아들은 자신이 따돌림 당하는 것을 신체 허약에 귀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raham & Juvonen, 1998). 중학교 1학년 남, 여학생들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미치는 신체적 능력 및 외모의 영향력을 밝힌 배아영과 이숙(2006)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외모를 낮게 지각할수록 남학생들의 직접적, 관계적 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신체 또는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 외모의 부정적 지각이 집단따돌림의 피해로까지 연결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외모적으로 매력있는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는 보고(Kleck et al., 1974)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 및 외모의 특성은 또래관계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신체 · 외모의 열세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가해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집단따돌림에 대한 방어역할을 하게 될 긍정적 또래관계의 형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신체·외모 스트레스를 피해의 유발 및 지속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집단따돌림 피해와 아동의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피해아들이 친구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일관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피해집단이 가해 및 일반집단에 비해 친구가 없어 소외감을 느끼거나 친구의 놀림과 무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길임·심희옥, 2002; 김혜원 · 이해경, 2000; 조아미 · 조승희, 2006). 또한 가해-피해 중첩집단에서 친구의 놀림 및 무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아, 2005).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횡단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친구의 놀림이나 무시 또는 불인정 등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피해를 지속시키는지 피해의 지속으로 인해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받는 것인지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집단따돌림 경험 이후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피해아들은 더욱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또다른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공격에 수동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따돌림을 당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측된다. 즉 피해아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피해로부터 탈피를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부모 애착 및 부모 감독

집단따돌림 피해의 영향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평생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아동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영향은 부모 애착 및 부모 감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집단따돌림과 부모 애착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피해아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남학생들의 피해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Ireland & Power, 2004). 부모의 관심과 격려가 집단따돌림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지지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이규미 외, 1998). 즉 학령기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은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이 포함되는 긍정적인 자원이 되므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의 결핍은 피해로부터 보호막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낮은 아동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이 지속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령기동안 아동은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집단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녀가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에 대해 아는 것, 즉 자녀의 일상생활을 부모가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부모 감독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없지만 부모 감독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또래관계 중 수줍음 및 고립성 수준이 낮다고 보고되었으며(천희영 외, 2001) 자녀에 대한 감독을 회피하는 어머니의 유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수용되지 못한다는 보고들이 있다(김희진, 1998; Finnie & Russell, 1988). 이를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높으면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부모 감독은 자녀가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아가 지속해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5) 친구 애착

집단따돌림과 또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피해아들이 지지적인 친구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이춘재 · 곽금주, 2000; 이해경 · 김혜원, 2001; Hodges et al., 1997). 피해아에게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지지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집단따돌림으로부터 방어적 역할을 하게 된다(Bukowski et al., 1995). 왜냐하면 가해아는 피해아 주변에 따돌림으로부터 방어해줄 친구가 있을 경우 보복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므로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피해아를 따돌림의 대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친구와의 정서적 친밀함이 낮은 아동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주변또래의 방어역할이 부재하므로 보복의 염려가 없는 가해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들은 자아존중감,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및 친구 애착은 피해

로부터 탈피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아동의 우울·불안과 신체 · 외모 스트레스 및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피해로부터 탈피를 제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피해 유발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신체 · 외모 스트레스,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및 친구 애착을 선정하였고 피해 지속요인에는 피해 유발요인으로 선정된 변수들과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를 포함시켰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며,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2]방법에 의해 표집된 것이다. 표본으로 선출된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학생들을 5학년(2차년도)까지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최종 표본수는 1, 2차년도 각각 2,844명과 2,707명이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1, 2차년도 모두 조사에 응답한 2,707명이고, 이 가운데 남아는 1,449명(53.5%), 여아는 1,258명(46.5%)이었다.

2. 측정도구

1) 집단따돌림 피해

집단따돌림은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집단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에게 부정적인 명칭을 공개적으로 부과하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소속집단에서 제외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며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이 수반되는 행위'를 의

2)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에 의해 15개 특별시, 광역시, 도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그에 따른 학교수를 결정하고 학교별 4학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학교의 4학년 학급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한 학교에 1개 학급 전원 조사)이 무작위 추출되었다.

미한다(권준모, 1999). 집단따돌림 피해를 측정하는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 '전혀없다'와 '있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판단하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 및 가치감'을 의미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에 관한 문항들은 Rosenberg(1965)의 척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긍정적인 항목과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부정적인 항목으로 나뉘는데, 부정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으로 점수화하였다.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쓸모 없는 사람으로 덜 지각하는 등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4로 나타났다.

3) 우울 · 불안

우울 · 불안에 대한 문항내용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등 우울 및 불안 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총 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5점에서 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4) 신체 · 외모 스트레스

신체 · 외모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내용은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3점에서 1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 외모의 열

세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1로 나타났다.

5)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내용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무시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문항내용: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 2문항이며,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2점에서 1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6으로 나타났다.

6) 부모 애착

부모 애착에 대한 문항내용은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등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총 6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6점에서 3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값은 .76으로 나타났다.

7) 부모 감독

부모 감독은 '자녀의 왕래 장소가 어디며, 누구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등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Kerr & Stattin, 2000). 문항내용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총 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

진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감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0으로 나타났다.

8) 친구 애착

친구 애착에 대한 문항내용은 '나는 내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등 평소에 잘 어울리는 친구와의 정서적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총 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진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에서의 Cronbach's α값은 .6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3]는 윈도우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 점수인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 및 피해 탈피집단과 피해 지속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 Korean Youth Panel Survey) 초4 패널 1,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것임'

Ⅳ. 연구 결과

1.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별 분포

집단따돌림 피해의 유발 및 지속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까지 피해지속여부에 따라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4학년 때 피해경험이 있고 5학년 때 피해경험이 없는 경우는 피해 탈피, 4학년 때 피해경험이 없고 5학년 때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피해 시작, 4, 5학년 모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엔 피해 지속으로 규정하였다.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비교집단으로서 4, 5학년 모두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이하에서는 '일반집단'이라 함)을 포함시켜 피해 탈피, 피해 시작, 피해 지속의 빈도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집단의 비율이 9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 탈피의 비율이 4.9%로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 시작의 비율은 2.8%, 피해 지속의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즉 4학년 때 피해를 경험하고 5학년 때 피해를 탈피한 아동의 빈도(132명)는 5학년 때 처음 따돌림을 당한 아동의 빈도(7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피해아 빈도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4학년 때 피해를 경험한 178명(피해 탈피 132명+피해 지속 46명) 가운데 약 26%의 피해아는 5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지속 46명). 이는 4학년 때 따돌림을 당했더라도 5학년 때까지 지속되기보다는 탈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1,449명 중 일반집단은 1,343명으로 92.7%를 차지하였고, 피해 탈피의 비율은 3.5%(51명), 피해 시작은 2.4%(35명), 피해 지속은 1.4%(20명)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는 1,258명 중 일반집단이 1,111명으로 88.3%를 차지하였고, 피해 탈피의 비율은 6.4%(81명), 피해 시작은 3.2%(40명), 피해 지속은 2.1%(26명)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일반집단, 피해 탈피, 피해 시작, 피해 지속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별 빈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 = 16.47$, $df = 3$, $p < .001$).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일반집단의 빈도는 낮고 피해 탈피, 피해 시작 및 피해 지속의 빈도는 높았다.

<표 1>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별 분포 빈도(%) (N=2,707)

구분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				전체	X^2
		일반집단	피해 탈피	피해 시작	피해 지속		
성별	남아	1,343(92.7)	51(3.5)	35(2.4)	20(1.4)	1,449(100)	16.47*** (*df* = 3)
	여아	1,111(88.3)	81(6.4)	40(3.2)	26(2.1)	1,258(100)	
전체		2,454(90.6)	132(4.9)	75(2.8)	46(1.7)	2,707(100)	

2.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

집단따돌림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것이 〈표 2〉에 제시되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우울·불안,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및 친구 애착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아동이 자신을 능력있고 가치롭게 평가할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낮고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및 친구로부터 무시나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반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고 부모의 감독 수준을 높게 지각하며 친구간의 친밀한 정도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우울·불안은 부모 애착 및 부모 감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애착 및 부모의 자녀 감독 수준이 낮은 반면 자신의 신체·외모의 열세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불안과 친구 애착간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은 모두 친구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그 둘간의 관련성(r=.50, p〈.001)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부모 감독 수준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 애착 및 부모 감독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애착 수준은 높은 반면 자신

의 신체·외모 스트레스와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더 적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 때 자신의 신체·외모의 열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일수록 5학년 때 친구로부터 무시나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 또한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05에서 .50의 범위에 있어 회귀분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독립변수들간의 적률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7
1. 자아존중감	1.00	-.39***	-.30***	-.21***	.37***	.28***	.17***
2. 우울·불안		1.00	.36***	.24***	-.18***	-.14***	-.02
3. 신체·외모 스트레스			1.00	.21***	-.15***	-.09***	-.05*
4.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1.00	-.15***	-.13***	-.05**
5. 부모 애착					1.00	.50***	.31***
6. 부모 감독						1.00	.25***
7. 친구 애착							1.00

주)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는 2차년도(초 5) 측정값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1차년도 (초 4) 측정값임.
*p<.05 **p<.01 ***p<.001

다음으로 집단따돌림 피해의 유발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차년도(초 4)의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신체·외모 스트레스,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및 친구 애착을 독립변수로 하고 4학년부터 5학년까지 피해경험이 없는 일반집단과 4학년 또는 5학년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 피해집단[4]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X^2 = 88.52$, $df = 6$), 전체 분류정확도는 90.8%이다. 6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신체·외모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세 요인 중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은 Wald[5]값이 가장 큰 신체·외모 스

4) 피해 탈피, 피해 시작 및 피해 지속집단을 포함함.

트레스(Wald=21.66)이고, 그 다음으로 우울·불안(Wald=10.91), 자아존중감(Wald=7.59)의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따라서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및 친구 애착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존재할 때 분류예측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신을 가치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길 경우 집단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들 (N=2,618)

독립변수	B	S.E	Wald	Exp(B)	Model X^2	분류정확%
신체·외모 스트레스	.12	.03	21.66***	1.12	88.52*** (df=6)	90.8%
우울·불안	.06	.02	10.91***	1.06		
자아존중감	-.06	.02	7.59**	.95		
부모 애착	-.01	.02	.09	.99		
부모 감독	-.01	.02	.04	1.00		
친구 애착	-.03	.03	1.28	.97		
상수	-1.88	.65	8.29	.15		

주) B의 부호가 +이면 어떤 케이스의 그 변수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여기서는 피해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0인 집단(여기서는 일반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p<.01 ***p<.001

3. 피해 탈피집단과 피해 지속집단을 구분하는 요인

집단따돌림 피해를 지속시키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1차년도(초 4)의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신체·외모 스트레스,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및 친구 애착과 2차년도(초 5)의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6]를 독립변수로 하고 4학년 때 피해경험이 있고 5학년 때

5) Wald는 $(B/S.E)^2$ 값으로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통계량임.
6)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에는 친구의 놀림과 무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집단따돌림 피해

피해 경험이 없는 피해 탈피집단과 4학년부터 5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피해 지속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본 모형의 적합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며(X^2 = 26.89, *df* = 7), 전체 분류정확도는 76.9%이다. 7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부모 감독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 중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Wald=17.80)의 영향력이 부모 감독(Wald=4.46)의 영향력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신체·외모 스트레스, 부모 애착 및 친구 애착은 다른 독립변수들이 모형에 존재할 때 분류예측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또는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얻지 못한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피해 지속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탈피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4학년 때 집단따돌림을 당했더라도 이후 친구로부터 놀림이나 무시를 받거나 인정을 얻지 못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경우, 또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감독하는 정도가 높았을 경우 5학년에 와서 피해를 탈피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표 4> 피해 탈피집단과 피해 지속집단을 구분하는 요인들 (N=169)

독립변수	B	S.E	Wald	Exp(B)	Model X^2	분류정확%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37	.09	17.80***	1.45	26.89*** (*df* = 7)	76.9%
부모 감독	-.12	.05	4.46*	.89		
자아존중감	.03	.05	.44	1.04		
우울·불안	.03	.05	.46	1.03		
신체·외모 스트레스	-.06	.07	.91	.94		
부모 애착	.09	.05	2.89	1.09		
친구 애착	-.10	.07	2.20	.91		
상수	-2.18	1.76	1.53	.11		

주) B의 부호가 +이면 어떤 케이스의 그 변수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1인 집단(여기서는 피해 지속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면 변수값이 클수록 내부값이 0인 집단(여기서는 피해 탈피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함.
*p〈.05 ***p〈.001

경험이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보다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차년도(초 5) 측정값을 사용함.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대부분의 횡단연구를 통해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된 요인들이 피해의 유발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자료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피해의 예방 및 피해아의 중재시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생에 비해 피해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5학년까지 피해가 지속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 피해 탈피, 피해 시작 및 피해 지속으로 구분하여 일반집단과 피해집단을 구분하는 요인 및 피해 탈피집단과 피해 지속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지속유형에 따른 비율은 일반집단(90.6%), 피해 탈피(4.9%), 피해 시작(2.8%), 피해 지속(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따돌림 피해의 지속유형은 다양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피해를 경험했다 해도 5학년에 와서 탈피하는 아동, 4학년 때 따돌림을 당하지 않다가 5학년 때 처음 따돌림 당하는 아동,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단따돌림 피해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학년 때 피해 경험 빈도(피해 탈피 132명)가 5학년 때 피해 경험 빈도(피해 시작 75명)보다 높게 나타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피해아 빈도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의 저연령화 현상을 반영한 결과(이해경·김혜원, 2001; 조아미·조승희, 2006)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조기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4학년 때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178명) 중 약 26%의 피해아(46명)는 5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고 2/3이상(132명)은 피해로부터 탈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 유형의 발달적 연속성을 살펴본 하니쉬와 구에라(Hanish, L. D., & Guerra, N. G., 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들은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에 개입한 집단 중 연령이 증가해도 처음에 속했던 집단과 같은 집단에 남아있게 되는 확률은 가해경험이 없고 피해만을 경험한 순수 피해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대부분 가해 및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변화하였음을 밝혔다. 피해아가 지속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례가 적은 비율이지만 집단따돌림은 지속해서 발생하여 피해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되지 않고 탈피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적절한 시기에 실시된다면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성별에 따라 피해지속유형의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피해 탈피, 피해 시작 및 피해 지속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4, 5학년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피해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의 피해빈도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높다는 결과(이해경·김혜원, 2001)와 일치하지만 집단따돌림의 성차는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남아들은 직접적인 형태의 따돌림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여아들은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피해경험 수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황성숙, 1999; Kochenderfer & Ladd, 1996). 따라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성차의 비교에서는 성별과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간의 관계를 통제 후 분석하여 얻은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피해의 유발요인은 신체・외모 스트레스, 우울·불안,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 요인 중 신체・외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남학생의 관계적 피해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배아영・이숙, 2006)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아동들은 외모적으로 매력있는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Kleck et al., 1974) 자신의 신체나 외모의 열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아동들은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해 줄 또래관계의 형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체・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아동이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불안이 4개월 후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을 예측한 것으로 보고한 김은정 외(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아들이 우울・불안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며 가해 및 일반집단에 비해서도 우울・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조아미・조승희, 2006; 한종철・김인경, 2000; Asher, 1990; Olweus, 1994)과 일관된 결과이다. 즉 피해아들이 보이는 우울·불안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 신호가 되므로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때 집단따돌림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더 많이 당한다는 연구결과들(김은정 외, 2001; 심희옥, 2002; Egan & Perry, 1998)과 일치한다. 즉 자신을 만족스럽거나 가치롭게 평가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또래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따돌림 제지에 대한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따돌림을 당하기가 쉬운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 유발에 대한 친구 애착의 영향력이 검증되지는 못하였으나 신체·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불안 및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피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피해 지속요인으로는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부모 감독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 중 부정적 친구관계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가 지속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우선적 요인은 부모 감독보다는 집단따돌림 경험 이후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무시 또는 인정을 얻지 못한데서 오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피해아가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다른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지속적인 따돌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이 지속되는 순환과정에서 피해아가 받는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검증되었다.

피해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은 부모 감독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해도 부모가 자녀의 만나는 친구가 누구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등 자녀의 일생생활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 경우 피해를 탈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아는 따돌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 감독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고립성 수준이 낮고(천희영 외, 2001)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감독을 회피할수록 자녀의 또래수용성이 낮다는 기존의 횡단연구 결과들(김희진, 1998; Finnie & Russell, 1988)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의 지속에 대한 부모 요인의 영향력에서 부모 애착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부모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함보다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피해아가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외모 스트레스 및 우울·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경우 집단따돌림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피해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 경우 집단따돌림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집단따돌림의 지속적 특성을 인식하여 대부분 횡단연구에 의해 밝혀진 피해에 대한 영향요인들이 초등학생의 피해 유발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자료를 통해 검증하여, 이들 요인이 다름을 밝힘으로써 피해의 예방 및 피해아에 대한 중재시 차별화된 개입방안을 시사한 점이다. 즉 초등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인 대처전략과 우울·불안 수준의 감소 및 자아존중감 수준의 향상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입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재전략에는 피해아에게 부정적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훈련과 함께 피해아를 자녀로 둔 부모에게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부모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위와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갖지만 특정 패널 자료에 의한 이차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몇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는 집단따돌림 피해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아의 사례수가 적게 나타나 피해 유발 및 지속에 대한 성별, 사회경제적 측면 및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집단따돌림은 가해아의 피해아에 대한 일방향적인 행위로서 발생하기보다는 가해 및 피해의 중복발생이 일관되게 보고됨에 따라(김선아, 2005; 김은정 외, 2001; 한종철·김인경, 2000; 황성숙, 1999; Karatzias et al., 2002), 피해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가해경험의 통계적 통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의 사례수가 적어 가해 통제후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향후 피해의 유발 및 지속요인 분석에서 가해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연구방법상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피해의 유발 및 지속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요인만을 검증하였으나, 향후 학교 환경, 가정의 물리적 환경 또는 피해아의 공격대처방식(예; 울기, 보복공격, 공격제지에 대한 주장)과 같은 요인들의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권준모(1999).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59-72.

김길임 · 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 비교. **한국아동학회지**, 23(5), 139-151.

김선아(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 - 피해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5-36.

김승경(2006). 집단따돌림 피해-가해 경험여부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환경 연구.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논문집**, 255-27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은정 · 김인경 · 정태연(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45-257.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1), 43-53.

배아영 · 이숙(2006).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대한가정학회지**, 44(4), 101-109.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 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 피해 ·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종단적인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3(3), 1-15.

이규미 · 문형춘 ·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 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이은주(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 및 집단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이춘재 · 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이해경 ·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아미 · 조승희(2006). 집단따돌림의 발달적 변화 및 집단따돌림 경험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논문집, 233-254.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천희영 · 옥경희 · 김미해(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10), 153-168.

최미경(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 단기 종단적 연구와 심층면접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파이낸셜 뉴스(2007). 소년사건수↓, 초교생 피해 · 여학생 가해↑. http://www.fnnews.com(2007. 10. 12).

한종철 · 김인경(2000). 또래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황성숙(1999). 학교내 집단따돌림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sher, S. R.(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Bjö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 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Boul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Bukowski, W. M., Sippola, L. K., & Boivin, M.(1995).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 M. Price(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Coie, J. D., & Dodge, K. 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Finnie, V., & Russell, A.(1988). Preschool children's socila status and their mothers' behavior and knowledge in the supervisory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89-801.

Graham, S., & Juvonen, J.(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587-599.

Hanish, L. D., & Guerra, N. G.(2004). Aggressive victims, passive victims, and bullies: Developmental continuity or developmental change? *Merrill-Palmer Quarterly, 50(1)*, 17-38.

Hodges, E. V. E., Boivin, M., Bukowski, W. M., & Vitaro, F.(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1992). Bullying :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Ireland, J. L., & Power, C. L.(2004). Attachment, emotional loneliness, and bullying behavior: A study of adult and young offenders. *Aggression Behavior, 30*, 298-312.

Karatzias, A., Power, K. G, & Swanson, V.(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 45-61.

Kerr, M., &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Kleck, R. E., Richardson, S. A., & Ronald, L.(1974). Physical appearance cues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5(2),* 305-310.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Linkages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s at home and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In P. K. Smith, W. Craig, & E. Hennessy(Eds.),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ISSBD, Berne, Switzerland.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Olweus, D.(1978). *Aggression in school.* Washington, DC: Hemisphere.

Olweus, D.(1993).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Publishers.

Olweus, D.(1994).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1171-1190.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mith, P. K., & Shu, S.(2000). What good schools can do about bullying: Findings from a survey in English schools after a decade of research and action. *Chilhood, 7*, 193-212.

Stevens, V., Bourdeaudhuij, D., & Oost, P. V.(2002). Relationship of family environment to children's involvement in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1(6),* 561-575.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the Inducement and Continuance of Peer Victimization

Seo, Mi-Jung* · Kim, Kyong-Ye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important variables at play that can be used to predict the inducement and continuance of peer victimization using the dataset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tudy (Cohorts of primary school fourth-grade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①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category of those suffering continuing victimization amongst both boys and girls was escaped victims, followed by new victims and continuing victims. In addition, girls had higher levels of involvement in terms of victimization than boys. ② The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or induced peer victimization were physical-appearance, stress, depression-anxiety, and self esteem. ③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tinuation of peer victimization were negative peer-related stress and parental monitoring.

Key Words : peer victimization, types of continuing victimization, inducing factors, continuing factors

투고일 : 12월 14일, 심사일 : 4월 8일, 심사완료일 : 4월 20일

* Postdoctoral,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y Campus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